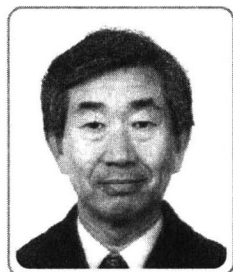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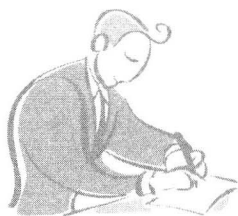


산업변천과 산업보건



홍연표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14세기 중엽, 유럽에 창궐하였던 페스트는 중세 기독교 사회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페스트로 인한 노동 인구의 절대적 감소가 농촌과 도시에 노동력 부족을 야기하고 노동자의 수입 증가로 이어졌다.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노동법은 빈곤층의 불만을 자극하여 혁명으로 이어졌고 이 와중에 신흥도시의 노동자 유치 경쟁과 상업조직이 생겨나 이들을 중심으로 가내 수공업이 발달하여 도시에 기반을 둔 길드와 교외의 방직공동체가 형성되었다. 한편 종교 윤리적으로 루터와 칼뱅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들은 과욕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미덕이며, 개인의 절제와 사회적 이익을 위한다는 가정 아래 자신의 부를 재투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어 미국의 프로테스탄티즘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기독교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인간에 관한 탐구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역사적으로 르네상스시대라고 불리는 기간을 거친다. 이 시기에 아그리콜라는 야금술 공정을 상세히 설명한 “De Re Metallica”(1556)를 출판하였다.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에이브라함 다비의

제철 산업에 파급되어 노동 방식에 영향을 주어 산업혁명의 단초를 제공한다. 철광석 제련에 숯 대신 석탄을 사용한 공정의 개선으로 생산 비용의 절감(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혁신)에 따른 대량 생산이 직업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대 근무제는 생산 근무 시간을 측정하여 인간 행동을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시계를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 두 요소(혁명이 아닌 개선과 시계라는 기계)가 훗날 토인비가 산업혁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을(1884년) 때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에서 인구가 넘쳐나고 산업화에 따른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도시 주택의 집값 상승을 부추겨 돈 없는 노동자들은 위생상태가 형편없는 열악한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영국의 채드윅은 “1842년 영국노동인구의 위생상태에 관한 보고서”, 엥겔스의 “1844년 영국노동계급의 상태”와 비에르메의 “1840년 섬유산업 노동자들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의 상태”에서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주거실태를 묘사하였다. 이러한 상태는 산업화된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국가의 사회 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정치체계에 역사적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이라는 용어 사용은 국가적으로 제조업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1960년대 중반 이후가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 대략 1960년 중반이후 약 30여년에 걸친 산업화 시기에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의 산업보건 문제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닥쳐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산업보건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 역시 서구의 산업화된 국가, 일본과 국제노동기구의 제안과 경험에 근거하여 실질적인 많은 일을 수행하였으나 국가 경제 우선주의로 인해 경제력이 빈약한 노동자들을 위한 분야에서 미흡하고 아쉬운 점들을 남기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서구 산업화 국가는 20세기 초에, 우리나라는 1970년에서 90년대 사이에 제조업의 특성상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상황이 좋았다. 그러나 최근에 이 같은 구조는 해체되어 가고 있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동화와 국가 간 이동, 이직의 증가, 자유 근무, 수입의 큰 격차, 삶의 방식의 변화는 노동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의뿐만 아니라 새로운 설명과 이해가 필요한 단계에 있다. 예를 들자면, 노동

형태의 변화, 정보화된 노동 방식, 노동 스트레스의 규정, 노동 윤리, 상대적 빈곤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힘들고, 위험하고, 귀찮은 노동 수요는 그래도 있게 마련이며, 출산력 저하로 인한 노동력 부족을 메꾸기 위한 정책으로 제3세계 노동자의 고용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보건 문제를 다루는 직종에 있는 사람으로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에 집중하여 그와 관련된 해결책을 다루는 것만도 무척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 변천은 서구 유럽에서 보았듯이 종교, 문화, 산업 공정 방식의 개선과 발달, 과학적 발달의 점진적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노동은 역사적으로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노동자의 건강은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산업보건의 지향점은 건강 문제와 더불어 우리 문화와 삶의 방식을 이해하려는 바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

(이 글의 내용에 이희원 역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몸과 마음; 2005, 원저: Henry E. Sigerist의 Civilization and Disease)"와 박정현 역 "피 땀 눈물(바다출판사; 2005, Richard Donkin의 Bood, Sweat & Tears)"을 참조하였습니다.)